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식 및 기념심포지엄 참가보고서

송영숙 · 서울독서교육연구회장/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강사(chekgori@hotmail.com)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설립경위 / 건물의 의미 / 장서 / 기본적인 역할과 서비스
 3.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식 및 리셉션
개관기념식 스케치 / 사와구리 카이토(澤口海斗)군의 축하 /
미치코 황후의 말씀 / 리셉션 스케치
 4. 국제어린이 도서관 개관기념 심포지엄
심포지엄 스케치 / 심포지엄의 진행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난 5월5일 일본 동경의 우에노(上野)공원에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었다. 일본은 2000년을 「어린이독서의 해」로 정하고 어린이 책과 독서에 대해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한 방법으로 「어린이독서의 해」를 맞이해 5월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상징적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을 선물하였다. 그와 동시에 5월8일에는 ‘어린이와 책과 독서-21세기의 어린이들을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올해 1월 중순경,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

식 및 심포지엄의 참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국제어린이도서관 카메다 쿠니코(龜田邦子)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나는 흔쾌히 승락했다.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식과 기념심포지엄에 한국대표로, 그리고 심포지엄의 발표자의 한사람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서 크게 공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원고를 준비하면서 반세기 동안의 우리의 독서환경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경험이긴 했지만 우리의 독서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잘 것 없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는 국민 독서환경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꼭 필요하다는 것과,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환경의 조성 및 독서교육이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도서관의 어린이봉사 발전을 위해 더 일층 노력해야겠다고 다짐도 해 보았다.

동경의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식과 기념심포지엄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어린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사회적 환경이 부러웠다. 그리고 진정으로 어린이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까 하고 조바심도 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보고서를 작성해 본다.

2.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설립경위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계획은, 아이들이 독서와 활자를 멀리 하는 것이 1992,3년부터 화제에 자주 오르내리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시작되었고, 시민단체나 그들의 소리를 들은 국회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열심히 운동하여 구체화되었다.

국립의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연락회와 의원연맹이 1995년 5월에 설립되고, 이듬해 「아동서센터(가칭)」의 기본계획이 책정되었다. 「아동서센터」라는 명칭은 아동서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동서 및 아동도서관에 관한 자료·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에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연락회나 의원연맹은 좀더 어린이들의 이용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1997년 1월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국제어린이도서관 준비실을 설치하게 된다.

1998년 3월 지부 우에노도서관(支部上野圖書館) 개축을 시작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실시계획이 세워진다. 1999년 4월에는 국립국회도서관법이 개정, 2000년 1월부터 개정 국립국회도서관법이 시행되면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로써 발족하였다.

2000년 3월 지부 우에노도서관 건물의 3분의 1가량의 개축을 끝내고, 5월에 부분개관을 하게 되었다. 완전개관은 2002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 22조 '대체로 18세 이하의 이용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 및 기타의 도서관자료에 관한 도서관봉사를 국제적인 연계 하에 행할 지부도서관으로써, 국제어린이도서관을 둔다'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국회도서관의 부설로 아동서에 관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봉사 전문도서관이 국립으로 설치되게 된 것이다.

건물의 의미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건물은 다이토구(台東區) 우에노(上野)공원에 있는 지부 우에노도서관의 건물을 개축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1906년 제국도서관으로써 지어졌고, 그후 1929년에 부분적으로 증축된 건물이다. 관동대 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동경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건물로 메이지(明治)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1990년에는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배려하여 개축할 때에도 메이지시대의 건축양식과 구조 등을 최대한 보존하여 후세에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 주려고 한다. 개축의 기본적인 설계는

동경대학의 교수이며 저명한 건축가인 안도오 타다오(安藤忠雄)씨가 맡았다. 또 역사적인 건물의 특징을 남기면서도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축공법을 채용했다. 이렇게 해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건물은 메이지(明治)·쇼오와(昭和)·헤세이(平成)의 3대의 건축물이 하나로 조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오래된 건물에 현대식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노인과 어린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계자인 안도오(安藤)교수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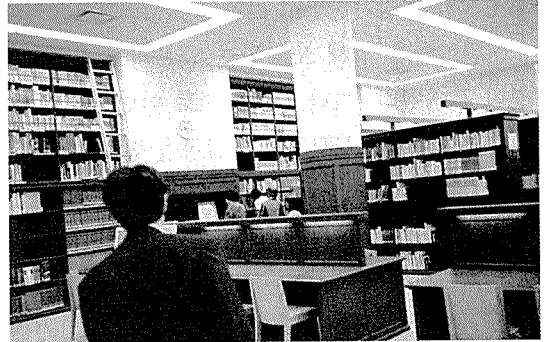
〈국제어린이도서관 전면〉

장서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의 아동서는 도서가 약 14만 권, 잡지가 약 1,200종이다. 제1기 개관시인 현재는 서고의 미완성으로 개가서가에만 4만 권을 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국회도서관은 외국의 아동도서를 수집하지 않았으나 1997년부터 외국의 자료 수집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문자를 읽을 수 없어도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수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양자료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함한 세계각국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려고 한다. 2002년 완전개관 때에는 본관에 남겨진 자료를 포함, 모든 아동서가 우에노

의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소장될 것이다. 도서관이 완전개관 되면 40만 권 정도의 자료를 소장할 수 있는 서고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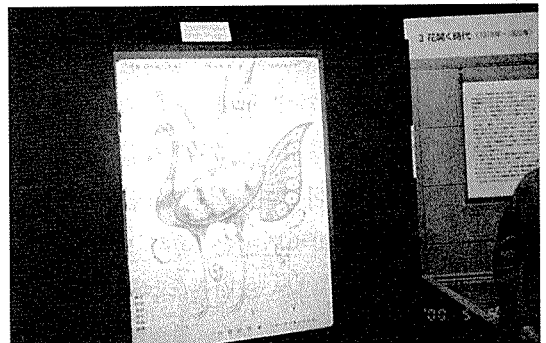
〈2층 자료실〉

기본적인 역할과 서비스

• 제일선에서 어린이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출판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는 내셔널 센터의 기능을 한다.

•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관의 세계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실시한다.

• 국내의 아동서 및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오오사카(大阪) 국제아동문학관 등 주요한 관련기관의 소장목록 정보를 통합하여 국내아동서의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아동서의 디지털 화상〉

다.

• 디지털 아카이브(아동서의 종합목록 데이터 베이스, 아동서의 디지털 화상, 기타 전문정보의 축적·제공)와 디지털 뮤지엄(역사적 가치를 지닌 그림책이나 귀중한 영상 등을 소재로 한 가상 전시 프로그램을 구축·제공)의 두가지 기능을 가진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의 활동을 돕는다.

다시 말하면 첫째,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각종 연수회의 개최를 통해 어린이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고 둘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 어린이 책에 관한 정보의 교환, 각종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자료·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셋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다른 문화의 이해에 공헌하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그리고 국제적 역할을 다 한다. 넷째,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로는 지역의 도서관과 학교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책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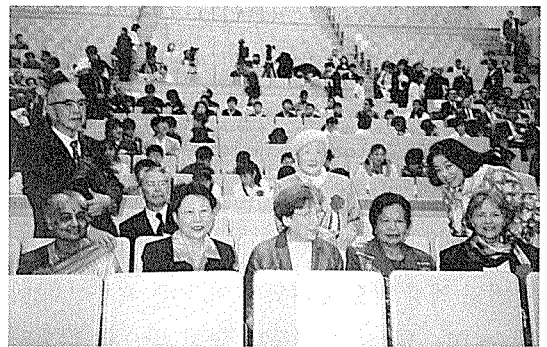
3.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식 및 리셉션

개관기념식 스케치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식은 동경예술대학 주악당(奏樂堂)에서 있었다. 동경예술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우에노공원 안에 있으며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개관기념식에는 황후를 비롯 국회의원 및 내외귀빈, 어린이들 470여명이 참가했다. 국립국회도서관장 및 중·참 양의원의 기념식 인사말이 있을 후 내각 총리대신(대리), 최고재판소 장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의원연맹 회장, 뮌헨국제아동

도서관장 바바라 샤리오트(Barbara Scharioth)와 '어린이독서의 해'를 위한 표어의 최우수 수상자인 초등학교 4학년생 사와구치 카이토(澤口海斗)군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황후의 말씀이 있었고 동경예술대학 출신의 중견 성악가 야스다 사치코(安田祥子)·유키 사오리(由紀さおり)자매가 축하연주로 동요 여러 편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는 기념식에 참여한 외국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부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우리 나라의 '고향의 봄'쯤 되는가 보았다. 물론 황후도 함께 부르고 있었다.

여기에 독서와 도서관에 관한 어린이의 마음이 잘 표현된 사와구치 카이토(澤口海斗)군의 축사와,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이야기와 아이들을 위해 일본의 어른들이 어떻게 독서환경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미치코황후의 말씀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사와구치 카이토군은 지방의 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어린이독서의 해'를 맞아 일본도서관협회에서 표어모집을 했을 때 "읽는 사람도, 읽혀지는 책도 모두 즐겁네"로 최우수상을 받은 어린이이다.



〈기념식이 시작되기 직전 고고우치 요시코(小河内芳子)씨와 함께. 고고우치 요시코씨는 90세가 훨씬 넘은 일본 최초의 여성사서로서 어린이도서관봉사, 어린이사서 교육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다.〉

사와구치 카이토(澤口海斗)군의 축사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매일같이 많은 종류의 이야기책- 옛날이야기, 마법사 이야기, 세계 각국의 동화 등을 읽어 주시곤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책은 그 중에서도 마법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가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와 코끼리와 기린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마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모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책을 많이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점점 나는 책과 멀어져 갔어요. 학교에서 독서주간이 가까워오면 나는 책을 빌리긴 했지만, 그 책들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빌려온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엄마와 할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들이 불쌍하구나! 그 책들이 읽혀진다면 기뻐할텐데.” 그때 나는, 엄마가 책을 읽어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즐거웠던가를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부터는 너의 친한 친구가 될게.”

내 책장에는 몇 해 동안 책장에 그대로 꽂혀, 한번도 책장 밖으로 나와 보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책들도 역시 밖으로 나와서 나처럼 놀고 싶어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과 친구가 되려고 완전히 나의 행동을 바꾸어 책과 함께 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책과 친구가 된 지 2년이 됩니다. 나는 시립도서관에 가서 모든 종류의 책을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내 친구들을 이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에 오면 깜짝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 큰 도서관을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기쁜 책과 슬픈 책, 동물에 관한 책, 식물에 관한 책, 무슨 책이든 다 읽으려고 합니다.』

미치코 황후의 말씀

『일본의 어린이날에, 첫 단계의 개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국립의 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던 어린이 책과 독서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또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러한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달아 협력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에게, 나는 마음으로부터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인도, 대한민국, 태국, 미국의 해외로부터 개관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참석은 국제어린이도서관을 이렇게 설립하고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큰 용기를 주는 것으로, 나는 그분들의 우정에 대해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따뜻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개관된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일본의 첫 번째 국립도서관이었던 건물에 들어섭니다.

이 건물은 94년 전에 건축되었고 역사적인 건축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축을 계획하고 그 일을 수행했던 분들이 원래의 건축구조나 기본적인 건축양식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냈는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초에 세워진 메이지 시대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이 깃든 이 건물의 개축이, 그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내·외부의 원래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역사적인 건물의 벽 속에서 어린이들은 훌륭한 많은 책들을, 일본 책뿐만 아니라 외국의 출판물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건물은 어린이 책을 쓰는 일, 청소년문학을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로써 제공될 것이며, 일본 각 지역의 도서관인들의 업무를 위해 정신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원을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써 제공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어린이봉사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이 도서관에 주어진 이중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평가와 강한 지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올바른 평가와 지지가 미래의 이 도서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약 2600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대부분의 도서관에 어린이열람실이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한 줄 알지만, 바로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 주었던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은 어린이와 책을 연결해 주는 일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일본의 어린이도서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후 일본에는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일본 고유의 활동인 어린이분고(文庫)가 있습니다.

분고는 개인이 집의 한 부분을 개방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이웃아이들에게 읽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고의 수가 이제 거의 공공도서관의 배가 되었고 「분고」라는 일본말은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또는 분고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들은 그 형태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책과의 유익한 만남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일본의 모든 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일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하려는 분들의 뜻과 친절에 대해 진지하게 거론하는 것은,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그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훌륭한 공동협업체로써의 역할을 언제까지나 유지해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하는 시점에서, 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훌륭한 정신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의 도서관이나 분고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을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진심 어린 나의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어린이들이 독서의 힘으로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자랄 수 있도록, 미래의 생활을 용기 있게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가치 있는 일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리셉션 스케치

국제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우에노공원에 위치한 유명한 레스토랑 우에노 세이요켄(上野 精養軒)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미치코 황후도 참석한 리셉션은 국제어린이도서관장 카메다 쿠니코(龜田邦子)씨의 인사말과 동경대학교수인 국제어린이도서관 개축설계자 안도오 타다오(安藤忠雄)씨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세이가쿠인(聖學園)초등학교 학생들의 핸드·벨 합주는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지, 이곳 저곳으로 자리를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넓은 홀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특별히 황후의 가까운 위치로 안내되어진 우리 외국손님들은 황후와 알현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도 가졌다. 악수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송영숙입니다. 개관기념식에서의 황후의 말씀은 감동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이들의 독서를 위해 노력해야지요. 함께 힘을 합해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는 미치코 황후는 무척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였다. 황후와 악수를 했던 한 어린이는 ‘집에 가서 손을 씻지 않겠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내게 달려와서 손을 더럽힐까봐 걱정이야’라고 황후와의 만남을 감격스러워했다. 한 외국인학교에서 초대되었던 모자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는 황후를 만나 악수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까지 했다.

4.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 심포지엄

주제: 어린이의 책과 독서; 21세기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2000년 5월 8일 13:00

장소: 국립국회도서관 별관 강당

발표자: <프랑스> 주느비에브 파트 (Genevieve Patte): 책의 즐거움 도서관장
<독일> 바바라 샤리오트 (Barbara Scharioth): 국제아동도서관장
<인도> 바샤 다스 (Varsha Das): 내셔널 북 트러스트 편집장
<한국> 송영숙(宋永淑): 서울독서교육연구회장
<태국> 송분 싱카마난 (Somboon Singkamanan): 전 스리나카린워로트 대학 도서관학과 교수
<미국> 시빌 야그쉬 (Sybille A. Jagush): 의회도서관 어린이자료부장
<일본> 시마 타요(島多代): 국제아동도서관협의회(IBBY)회장
마츠오카 요오코(松岡享子): 도쿄 어린이도서관장

의장: 카메다 쿠니코(龜田邦子):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장

심포지엄 스케치

심포지엄이 시작되기에 앞서 동시통역자들과의 조율, 마이크시설의 점검 등이 있었다. 사전 준비는 거의 완벽해 보였고, 국회도서관 별관 강당도 참석자들로 꽉 찬 느낌이었다.

휴식시간에 있었던, 각국의 발표자가 가지고 온 그림책의 작은 전시회에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한국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듯 했다. 1996년 히비야(日比谷)도서관을 통해 일본에 소개했던 ‘만희네 집(권윤덕, 길벗어린이)’과 1998년 도쿄(東京)어린이도서관을 통

해 소개한 ‘이씨방 일곱동무(이영경, 비룡소)’는 일본판으로 번역이 되어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일본에 처음 이 책들을 소개한 나로서는 여간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었다.

일본 전국에서 온 도서관 관계자들, 특히 어린이봉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각국의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보았고, 그들의 진지함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마침 아카사카(赤坂)에 소재한 일본국제교류기금 포럼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으로 “어린이의 세계로부터”라는 주제로 한국의 그림책 원화전이 열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그림책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심포지엄장에서 한국의 그림책 원화전을 주관했던 후쿠인칸 쇼텐(福音館書店)의 전 회장인 마츠이 타다시(松居直)씨를 만났는데, 한국그림책 전시회를 여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림책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좋은 그림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또 한가지 확인한 사실은 20년 이상 어린이의 독서와 어린이 도서관봉사에 대해 내 나름대로는 전문가로써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국의 발표자들이 모두 나보다도 연배가 높고 경험에 있어서도 훨씬 선배였다는 것이다. 내가 이들 중에

가장 젊었고 따라서 경험도 가장 미천했음을 고백한다.

심포지엄의 진행

다음은 국제어린이도서관 기획협력과에서 정리한 심포지엄의 발췌기록을 참고로 번역한 글이다.

『2000년(平成12년) 5월 8일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은 230명 이상의 참석자와 함께 개최되었다. 해외에서 6명, 일본에서 2명의 각국의 저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어린이와 책과 독서-21세기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테마로 제1부에서는 강사들로부터 각국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제2부는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을 맞이하여 토의형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보고하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카메다 쿠니코(龜田邦子) 국제어린이도서관장의 인사말과 참석한 강사들의 소개가 일어난 후, 각 강사의 보고에 들어갔다.

미국 의회도서관 아동자료센터의 부장인 시빌 야그쉬(Sybille A. Jagush)씨가 먼저, 아메리카에서 컴퓨터 세대인 어린이들이 독서에서 멀어지는 최근의 상태,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대의 상업주의의 비판, 이러한 세계에서 어린이와 책을 어떻게 묶어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카-츠의 「전자시대에 있어서의 독서의 운명」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독서와 멀어지는 현상에서 인류가 책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유산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것이 이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전자통신의 급격한 진보 때문에 사실은 독서라는 행위가 상실되려한다는 것에 대해 발언했다. 또 바-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

카츠가 말하고 있는 '독서환경의 조성'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독서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프랑스의 '책의 즐거움' 도서관장 쥘리비에브 파트(Genevieve Patte)씨가 프랑스의 아동출판사의 현황,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활동의 사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출판사정이나 도서관의 수적인 면에서는 얼핏보아 이상적인 환경처럼 보이나 실은 도서관경영이나 신기술에 대한 사서의 훈련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외부로부터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도서관활동에 손을 뻗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강조된 것은 사회적 몰락자들을 위해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들을 위한 활동으로 도서관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라는 흥미 있는 보고가 있었다. 당 도서관의 활동인 '푸른 하늘 도서관' 프로그램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이나 독서라는 것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도서관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 뮌헨의 국제아동도서관장인 바바라 샤리오트(Barbara Scharioth)씨는 아라비아의 격언 "책이란 주머니에 넣어 걸어다닐 수 있는 정원"이란 말을 기본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 2차대전 후 독일의 아동서 보급활동의 역사, 뉴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아동서의 위치에 대한 심각한 상황과 독서를 멀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인 국제아동도서관의 '리딩 뮤지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미카엘 엔디 뮤지엄을 시작으로 이러한 뮤지엄이 계속해서 개관되고 있으며, 이들은 보존을 위한 공문서관, 연구를 위한 장소, 그리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문학적

오브제를 공개하고 전시하는 장소로써 책과 독서를 옹호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한편 인도의 내셔널 북 트러스트(National Book Trust)의 편집국장인 바샤 다스(Varsha Das)씨는 인도와 인근제국의 독서보급활동의 현상과 과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인도에서는 인재개발성의 부설로 발족된 내셔널 리터러시 미션, 세계은행의 자금공급을 받는 지방의 초등교육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인도에서는 모든 독서보급활동을 NGO에 맡기고 있는 상태이며, 경제적 사정에 강한 영향을 받는 식자율(문맹율)의 문제, 다민족·다언어국가로써의 효과적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출판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태국의 전 스리나카린위로트 대학의 교수였던 솜분 싱카마난(Somboon Singkamanan)씨는 자신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태국의 아동서 및 아동문학사정과 어린이독서 증진운동에 관해 보고하였다.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린이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 태국 어린이들의 생활과 교육의 현상 및 과제 등을 소개하였다. 양질의 책은 값이 비싸서 지방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책을 읽을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 아이들이 교과서 이외의 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중에도 그녀가 기획해 온 아동문학 강좌와 어린이독서를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1989년 IBBY아사히 상을 수상한 순회문고, 어린이 책의 평가프로그램, 타이-라오스 청소년독서를 위한 공동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었다.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인 송영숙(宋永淑)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한국의 아동 독서환경에 관해서,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사정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가 많이 생겨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으나, 최근에는 아동서의 출판도 늘고 서점도 많아졌다. 서울시내의 공공도서관도 지난 반세기동안 22개관으로 늘기는 했으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어린이를 이용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이 1979년에 설립되고 각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는 있으나,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학위논문관으로 그 역할이 바뀌어 어린이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의 서비스는 일반, 어린이 어느 쪽도 결코 충분치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 중에도 유일하게 계획되었던 한국실정에 맞는 한국적인 독서교육프로그램인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독서교육에 관한 의미, 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즉, 문자교육과 독서교육은 별개의 것이며,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읽고 쓰는 것보다도 듣는 힘, 말하는 힘이다. 문자교육에 앞서 언어에 대한 감각을 훈련시키는 것, 상상력과 어휘력을 키워 주는 것이 독서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도쿄어린이도서관 이사장 마츠오카 교오코(松岡享子)씨는 일본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선진국 공통의 문제로서, 잡다한 물질과 정보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이들을 끌어 낼 만한 독서 환경이 주어져야만 하겠다는 근래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독서가 가져올 내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전후 50년을 지나는 동안 일본의 어린이독서환경

은 어린이문고를 시작으로 어른들과 부모들이 열심히 활동하므로써 발전해 왔다. 반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어린이의 독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구석구석까지 기계화되어 생활의 스피드가 빨라지고, 인공적인 오락이나 정보의 수단이 침투되어 이제는 내면적인 독서환경이 악화되었다. 그 가운데 독서라는 행위가 왜 중요한 것인가. 즉 사람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제일 좋은 이미지의 원천은 책 속에 들어 있으며, 도서관 인간이 사색하고 기억을 확인하려는 정신 활동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독서가 가능한 시간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가능했다는 것への 기대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제1부의 마지막으로 IBBY회장 시마 다요(島多代)씨가 IBBY의 역사,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IBBY는 책을 통해 평화의 이념을 어린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활동에 연계하여 시작하였다. IBBY 발족에 앞서 열렸던 준비집회에서 강연자로 출석했던 오르데가 A. 가제트의 강연을 소개하면서 IBBY의 기본이념, 즉 국경을 초월해서 전세계에 책을 널리 퍼뜨려야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협력해 가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였다.

제2부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을 환영하는 보고와 함께 토의가 이루어졌다. 마츠오카 교오코(松岡享子)씨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카메다 국제어린이도서관장이 국제어린이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 왜 설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어린이가 독서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문제, 그것을 국가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되어 정치가까지도 힘을 모아 국

립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도서관을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21세기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국립의 어린이 책에 관한 전문도서관을 생겨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국립으로써의 의의, 역할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나라가 자료, 정보를 수집하므로 어린이 책에 관한 도서관 서비스, 어린이 책에 꼭 들어맞는 여러 가지 활동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역할로서,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각 나라와의 협력을 추진해 가는 것, 또는 국제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립국회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사업에 관해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입장에서 본 의미에 대해 말하고, 특히 중요한 역할로서 '어린이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것, '어린이와 책이 만나는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 각 지역의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도서관과는 또 다른 역할을 들었다. 이러한 어른과 어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봉사해야 하는 도서관으로서 어떻게 효과적인 기능을 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으로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의 각 나라로부터 기대되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할로써, 아시아의 어린이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가에 대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이어서 내셔널 센터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강사들이 국립기관의 의미에 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였다.

인도의 내셔널 북 트러스트는, 다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로써 인도의 언어로 된 책을 제공하고, 값싼 가격으로 책을 제공하여 독서습관을

육성하며, 독서보급활동을 한다는 세 가지 목적으로 1957년 창설되었다. 전국규모의 북 페어를 열고 책이나 독서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학생들 사이에 독서보급의 전개, 나라의 식자율 향상 프로그램도 전개하고 있다. 학교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즉 초등학교에 어떻게 도서실을 개설할 것인가, 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서시간을 만들어 주는가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언어의 국어로 책을 출판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인 역할로서는 상당히 명확하고 중요한 경우이다.

프랑스에서는 아동도서관이 원래부터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고, 국가기관과의 연관성이 처음부터 있어 왔으며, 이런 도서관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네트워크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국내의 도서관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역할을 내셔널 센터가 맡고 있다는 것, 납본제도로 모든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는 것, 외국과의 국제교류의 창구가 된다는 것을 내셔널 센터의 역할로서 소개하였다.

미국은 프랑스의 상황과 같으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생긴 새로운 역할을 소개하였다.

자금조달이라는 것이 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도서관원 자신이 프레젠테이션이나 견학 등을 주관하기도 한다. 대폭적인 디지털화의 추진, 그리고 의회도서관의 변화로서 많은 일반대중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연구시설로서의 역할과 관광객을 받아들인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의 국제아동도서관은 원래는 민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국가, 주,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기관

이다. 특히 국제적인 도서의 수집과 소개, 국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소규모의 전시회- 예를 들면 작가별, 일러스트레이터별, 외국의 책, 평화에 관한 것 등 테마별-를 연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IBBY의 시마(島)회장이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립이기는 하지만 NGO와 정부라고 하는 입장을 너무 나누어서 생각지 말고, 더욱 개인의 힘을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모든 일을 국제어린이도서관이 독자적으로만 하지 말고, 많은 개인으로부터 힘을 모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콜렉션을 국제어린이도서관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개인콜렉션을 받아들일도록 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이 더욱 매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츠오카 료오코 씨는 일본에는 어린이문고라는 NGO가 국립에 앞서 시작되었고 성숙되었지만, 그 일을 하는 개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자료를 모아 보존하는 것이고, 그런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나라에 바라는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어린이의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의 일본이 과거의 자산을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는 현실, 그것을 막기 위해 자료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국제어린이도서관에 기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파트 씨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이 특히 아시아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 반드시 국제적인 도서관으로 성장하여 아시아 각국의 아름다운 것을 서구사회에 전하는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아시아 각국이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바라는 것

으로 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좋은 책에 대한 정보, 어드바이스를 희망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고, 한편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아시아의 자료를 소개하는데 협력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상당히 알찬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카메다 국제어린이도서관장으로부터 IBBY 인도대회에서 황후폐하의 강연일부를 소개하면서 심포지엄을 끝내었다.』



〈발표하는 필자〉

5. 맺는 말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독서환경에 대해 발표한 내용의 전문을 소개하면서 이 보고를 마치려고 한다.

『제일 가까운 나라, 한국에서 온 송영숙입니다. 일본어가 서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독서환경의 변화를 보기 위해 제가 어렸을 때 체험했던 독서에 관한 기억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947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1950년 한국동란 때 남쪽으로 피난했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1954년이었습니다. 그 때 유일하게 즐겨 읽었던 책은 국어 교과서였지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그 당시 교과서 이외의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부모

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독서환경 따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새 학기가 되어 새 교과서를 받으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외울 정도로 읽었지요. 국어 교과서였지만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1958년, 제가 5학년이 되던 여름방학에 서울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때부터는 동네의 대본소에서 만화와 소설을 빌려보곤 했습니다.

제가 도서관과 처음 만난 것은 1960년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중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지요. '어쩌면 이렇게 많은 책이 있을까? 내가 언제 이 많은 책을 읽어 낼 수 있을까?' 그로부터 저는 학교도서관에서 세계명작전집을 차례차례 읽어 나갔지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도 만났고 소공자, 소공녀, 몬테크리스트 백작, 장발장 등 많은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2-3학년이 되어서는 한국문학전집을 읽었습니다. 고교생이 되어서는 세계문학전집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시내 중심부에 있었지요. 학교 가까이에는 좋은 서점이 몇 군데 있기는 했지만 그 책방에서 어린이 책을 보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서울시 내에는 대형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초방을 시작으로 어린이 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의 독서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어린이 책에 관여하게 된 것은 1987년경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책을 고른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작가의 어린이를 위한 작품도 그

리 많지 않았고, 외국작품 또한 책임지고 추천할 만한 번역작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책다운 그림책이 조금씩 번역,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경부터입니다.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어린이전문출판사가 한국에도 생겼고, 이러한 출판사를 통해 양질의 외국책의 번역과 함께 오리지널 국내작가의 그림책도 많이 출판되기 시작했지요. 그후 어린이 책의 출판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고, 특히 그림책의 출판은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독서환경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인 출판사나 서점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만 또 하나의 기본요소인 도서관의 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지요.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훨씬 넘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도시에 공공도서관은 분관 1관을 포함해서 22개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 1,000만인이 도서관의 혜택을 받기에는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서울에는 1950년 이전부터 있던 공공도서관이 2개관 뿐이었습니다. 그 후 1970년대가 되어 설립된 도서관이 4개관입니다. 동경의 독립중앙도서관에 해당하는 서울시립 정독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1977년입니다. 저는 1977년 정독도서관이 개관할 당시부터 1979년까지 근무했었지요. 1980년대가 되면서 공공도서관이 좀 늘게 되어 새로 10개관이 생겼고, 1990년대에 5개관과 1분관이 설립되어, 현재 서울에는 시립공공도서관이 22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 국립국회도서관이 있을 뿐이지요. 이와 같은 도서관 상황 중에 어린이를 위한 봉사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을까요. 1977년 정독도서관 개관 당시에는 어린이봉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린이열람실을 마련하여 어린이봉사

를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1985년 이후에야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들도 도서관의 이용자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열람실과 별도로 유아열람실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도 몇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봉사를 하고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은 학위논문관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 이제는 국립의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상황으로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또 어린이들에게도 봉사다운 봉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지요. 한국에서는, 책 또는 독서라는 것을 말할 때는 먼저 책방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도서관을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가 이렇다면 지방의 상황은 어떠할지 여러분은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각 도서관에 독서와 관련된 어린이봉사 프로그램도 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어린이봉사 프로그램인 이야기시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서와 관련된 한국적인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것은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입니다.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지 못한 한국의 실정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종합적인 도서관교육을 실시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 천년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길러 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독서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의 기본적인 유의점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문자를 교육하는 것과 독서교육은 별개

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흔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으로 독서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디만, 저는 절대로 문자교육으로 독서교육이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읽고 쓰는 것보다도, 듣는 힘이나 말하는 힘이 아닐까요. 문자보다도 말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면 어휘를 늘리게 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겠지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면, 사용되어진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독서체험은 독서의 세계, 책의 세계로 쉽게 끌어 들일 수 있겠지요. 문자를 배우기 이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도록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독서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틀을 만들어 아이들을 그 틀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틀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두어 놓고 그곳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기발한 발상이 가능하지요.

그러한 유연한 생각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엉뚱한 것으로부터 상상력, 창의력이 발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린이의 독서와 독서교육에 관해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마음속에 다지면서, 이상적인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고, 독서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어린이의 책, 도서, 도서관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어린이 책과 독서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국가기관이 생겨서,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작지만 아주 소중한 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둘러 싸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할머니, 그것이 바로 머지않아 다가올 저의 미래상입니다.』

참고문헌

國際子供圖書館(팜플렛)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館.

國際子供圖書館 開館紀念式典(팜플렛)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國際子供圖書館 開館記念 國際シンポジウム (발췌 기록) 國際子供圖書館 企劃協力課.

國際子供圖書館의 概要. 板本 博. 圖書館雜誌, Vol.54, No.5, (2000년 5월호) pp.303-305 日本圖書館協會.

「國際子供圖書館」開館-日本 初の 國立兒童書專門圖書館. 杉山きく子. 圖書館雜誌, Vol.54, No.6. (2000년 6월호) p.397 日本圖書館協會.

2000년도 신간

현대정보관리학총서 32

디지털도서관과 사회과학정보원

최 은 주 저

신국판/528쪽/ISBN89-8678-045-0/정가 18,000원(회원보급가 14,400원)

- ◆ 사회과학 정보원의 이해와 이용에 필요한 배경적 지식 ◆
- ◆ 사회과학 11개 분야별 최신 참고정보원 860여종 및 주요 데이터베이스 340여종, 총 1,200여종의 정보원 수록(각각의 정보원에 대한 해제) ◆
- ◆ 사회과학 11개 분야별 주요 웹사이트, 연속간행물, 학술·연구단체 수록 ◆

간략목차

- | | |
|----------------------------|--------------------------|
| 1. 총론 | 2. 사회과학분야별 개관 및 주요 참고정보원 |
| 1.1 사회과학의 개념 | 2.1 사회과학종합정보원 |
| 1.2 학문의 발전 과정 | 2.2 사회학 |
| 1.3 학문의 연구영역 | 2.3 인류학 |
| 1.4 학문의 연구방법 | 2.4 정치학 |
| 1.5 사회과학정보의 종류 | 2.5 경제학 |
| 1.6 사회과학정보의 유통과 이용 | 2.6 경영학 |
| 1.7 사회과학정보의 도서관 서비스 | 2.7 법률학 |
| 1.8 사회과학정보서비스 기관 및 학술·연구단체 | 2.8 행정학 |
| | 2.9 교육학 |
| | 2.10 지리학 |
| | 2.11 심리학 |
| | 2.12 문헌정보학 |

구입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